

김동완, '가난뎀' 비판..."타인의 결핍을 소품으로 다루"

등록 2025.12.26 17:04:39



[서울=뉴스시스] 남정현 기자 = 그룹 신화의 김동완이 온라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난 뎀(유행·모방 게시물)'을 비판했다.

26일 연예계에 따르면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이걸(가난을) 자조 섞인 농담이라고 하기엔 타인의 결핍을 소품으로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난은 농담으로 쓰기 힘든 과정이다. 웃기기 위해 할 수 없는 말들이 있고, 지양해야 할 연출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도 돈이 없어 삼각김밥 하나를 살지 말지 고민하는 대학생들의 손에 먹고살기 위한 폰이 쥐어져 있으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말 맞는 말이다", "불편했던 뎀이었다",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가난 뎀'은 "지긋지긋한 가난", "지독한 가난" 등의 문구를 쓰고 재력을 과시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름값이 없다고 하면서 외제차를 몰거나, 라면을 먹지만 비행기 일등석에 앉아 있는 모습 등을 인증하는 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